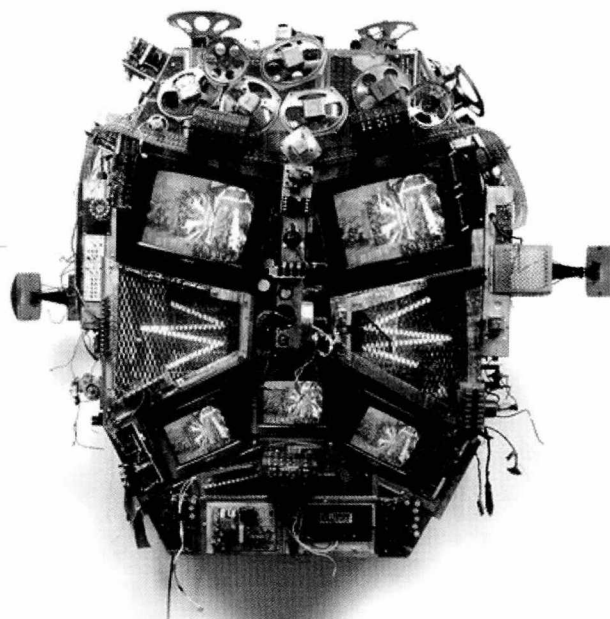


텔레비전은 인간의 오감을 부활시켰다

텔레비전 미디어의 특성과 역사적 의미

이동후 | 인천대 신방과 교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은 증가해왔고 미디어가 매개한 상징의 세계에 머무는 시간도 더욱 많아졌다. 오늘날 텔레비전은 인터넷과 융합하면서 그 존재 영역이 오히려 넓어졌다. 인터넷에서 구어문화의 부족공동체적 성향이 강화되고 논리적인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 텔레비전의 인지 양식이 확대되는 것이다.



현실적인 경험을 감각적이고 분절화된 이미지로 대체한 텔레비전을 바로 보기 위해 미디어 환경에 대한 성찰적 태도가 필요하다.

‘환경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것은 지나친 말이 아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 변하는 삶의 조건에 각자의 방식으로 적응하며 살아왔다. 흔히 ‘환경’이라 할 때 물리적 환경만을 생각하지만,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의사소통하는 미디어 또한 중요한 환경이다. 한국방송진흥원이 1999년에 조사한 수용자 의식 조사에 따르면, 케이블 TV나 중계유선방송을 포함한 TV 시청시간이 평일에는 3시간 20분, 토요일에는 4시간 20분, 일요일에는 4시간 50분으로 1994년 이후 20%나 증가했다고 한다.

미디어는 인간 삶의 조건 변화시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은 증가해왔고

미디어가 매개한 상징의 세계에 머무는 시간도 더욱 많아졌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세계무역센터빌딩이 붕괴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동계올림픽 경기를 현장에서 보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참관할 수 있는가 하면, 이웃의 일보다 연예인의 동정을 더 많이 알고 지낸다. 미디어가 일상의 공간과 시간을 차지하면서, 우리는 미디어 환경의 달콤함과 편리함에 압도당하며 그것이 없이는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미디어에 의존하게 됐다.

미디어를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환경으로 주목한 대표적인 학자로 맥루한, 옹, 포스트만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미디어가 각각 서로 다른 상징적 형태와 물질적 형태를 갖고 있으므로 각각의 매체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성격 또한 다르다고 봤다. 이 상이한 방식들이 우리가 세상

을 인식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미디어의 형태에 따라 메시지의 상징적 형태, 메시지가 유포되는 속도와 범위, 메시지의 양, 메시지 전달의 효율성 및 정확도, 메시지가 흐르는 방향, 메시지의 접근성 등이 달라진다. 즉 미디어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달라지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일상 생활 속에 내재화됐을 때 우리가 보고 말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양식이 달라질 수 있다. 텔레비전은 기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었던 인쇄매체나 구어와는 다르면서도 유사한 미디어의 형태로 우리의 상징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

19세기 말 미국에서는 20세기를 풍미할 텔레비전의 환경적 특징을 예견한 컨셉트 스케치가 등장한다. 바로 풍자화가 엘버트 로비다가 한 여인이 집에서 ‘텔레포토스코프’(telephotoscope)를 통해 수학을 배우고 실크스타킹을 쇼핑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텔레비전은 ‘소리가 나는 영상’(sight with sound)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텔레포토스코프로 묘사됐다.

텔레비전은 메시지의 상징적 형태가 디지털적인 문자가 아닌 아날로그적인 이미지와 소리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쇄매체와 구별된다. 인쇄매체의 상징적 형태를 읽기 위해 추상적인 문자와 명제적인 문장 구조를 익히고 인지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소리와 영상과 같은 아날로그적 코드를 사용한 TV를 보기 위해 별다른 학습은 필요 없다. 아주 어릴 때부터 누구나 쉽게 소리와 영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쇄물을 읽게 되면서 잃어버렸던 청각의 경험이 되살아나고, 추론을 하는 인지 패턴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

인쇄매체를 통해 지식이나 경험이 활자화될 때 메시지는 저자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분리돼 기호화되고 선형적으로 배열된다. 독자는 시공을 초월해 각자 이성적으로 추론하면서 글을 읽는다. 이로써 저자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텔레비전의 메시지는 이미지와 소리로 즉각적으로 다가와 시청자가 거리를 두고 생각해볼 여유가 거의 없다. 시청자는 이성적인 추론 없이 현장에서 전달하는 화자의 메시지와 전자적으로 연결된 지구촌의 이미지를 전적으로 받아들인다.

구어적 커뮤니케이션 되살려낸 텔레비전

용은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 전화, 라디오, TV로 구성된 전자문화를 “제2의 구술문화”

라며 이것은 제1의 구술문화, 즉 문자 텍스트가 없었던 시절의 문화와 많이 닮았다고 한다.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구어는 소리로 전달된다는 매체적 특징이 있다. 발설되는 순간 사라져버리고, 그때 그곳에서만 존재한다. 구어의 메시지는 발설 현장에서만 존재하기에 구어 메시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기억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메시지가 공식이나 반복적인 리듬을 갖게 된 것이다. 구어로 의사소통할 때 사람은 대화이 이뤄지는 현장/현재에 참여하며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의사소통의 정황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사고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텔레비전과 구어가 닮은 점은 사람을 메시지의 공간과 시간 속에 순간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TV는 즉각적으로 메시지의 현장/현재를 전달함으로써 구어의 참여적이고 공동체적인 성격을 공유할 수 있다. 구어의 메시지는 메시지가 들리는 범위 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범위만큼만 유포되는 반면, 텔레비전 메시지의 유포 범위는 전지구적일 수 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메시지를 추론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분석하기는 어렵다. 채널이 늘어나고 리모콘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쉽게 옮겨다닐 수 있게 되면서 더욱 메시지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생생한 이미지를 통해 여러 단편을 접하며 울다가 웃다가 심각해지는 등 다양한 감정의 색깔을 쉽게 바꿔갈 수 있다. 파편적인 광고 메시지와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이 혼재하며 프로그램의 흐름이 불연속적인 내적 논리를 보임에도 이런 모순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대부분 시청자들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성적으로 추론하지 않는다. 텔레비전을 보는 행위가 책을 읽는 것보다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울 수 있다.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미디어 기술은 끊임없이 기존 미디어의 부족한 기능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발달했고 이런 기술발달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생물학적 조건을 뛰어넘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됐다. 이런 미디어 기술의 방향은 정보의 범위를 확장시키면서 동시에 오감을 끌고루 사용해 자연 그대로의 메시지를 접할 수 있게 발전해왔다. 구어가 소리라는 매체적 한계 때문에 메시지의 보존 및 유포 범위가 제한됐다면, 문자나 이것의

효과를 극대화한 인쇄술은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텔레비전과 같은 전자매체는 인쇄매체의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균형이 깨진 오감의 감각을 원래대로 복귀시키고자 했다. 인터넷은 텔레비전의 일반적인 정보 흐름을 쌍방향으로 바꿔놓으며 다양한 양식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텔레비전과 인터넷, 상호보조적인 관계 형성해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기존 미디어 문화는 위기의식에 빠진다. 플라톤의 《파이드

로스》에 등장한 타무스왕은 문자의 등장으로 기억 속에 내재된 지적 자원이 외적인 기호로 표기되면서 인간의 기억 능력이 감퇴하고 “대부분 무지하면서도” 많은 정보를 내세워 아는 척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포스트만은 텔레비전에 사회적 의사결정이나 행동과 상관없는 탈 맥락적인 정보가 가득하고 비주일이 가미되지 않을 경우 비판적 담론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새로운 미디어가 기존 미디어를 대치하기보다는 공존하거나 기존 미디어의 성격과 통합 또는 혼성화된다는 점이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텔레비전의 영향력은 다소 줄어든 듯하다. 인터넷은 다양한 화자와 다양한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고 텔레비전에 만족하지 못한 인간의 정보추구 욕구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텔레비전은 정보 형태의 다양성이나 정보의 양 또는 상호작용성에서 인터넷에 밀리고 오락 기능마저 조금씩 잠식당하고 있다. 하지만 텔레비전의 영상정보는 인터넷의 구성 요소로서, 다른 텍스트 정보와 혼재하면서 그 존재 영역이 오히려 넓어졌다. 인터넷에서 구어문화의 부족공동체적 성향을 강화하고 논리적인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 텔레비전의 인지 양식이 확대된 것이다. 텔레비전은 현장의 소리와 영상을 탈맥락화시키고 가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이미지나 가상적 경험의 확대로 텔레비전에 정보의 과부하가 일어났고 우리는 정말 많은 것에 시선을 두게 됐다. 어떤 것이 의미 있는 메시지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메시지로부터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텔레비전의 등장으로 미디어 환경의 영향력이 크게 가시화됐지만 그런 텔레비전 환경을 의식의 차원으로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다. 현실적인 경험을 감각적이고 분절화된 이미지로 대치한 텔레비전의 불완전한 삶의 조건을 바로 보기 위해 미디어 환경에 대한 성찰적 태도가 필요하다. 미디어 환경의 잠재적이고 축적적인 효과를 성찰해보며 우리가 삶 속에서 잃은 것과 얻은 것이 무엇이고 어떤 미디어 환경을 추구할지 생각해야 한다. ■

이동후 교수는 인천대 신방과에 재직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기술중심적 미디어론에 대한 연구> <지역의 텍스트성> <인터넷 영화의 혼성적 성격에 관한 고찰> 등이 있다.